

“2500만명 정보를 한 서버에 저장·관리 납득 어려워”

SKT 유심 정보 유출 전문가 진단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유심 교체 대상자 2500만명 달해
확보 물량 100만개 뿐...사회 혼란
“보안 컨트롤타워 구축 검토해야”

해커의 공격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천만명의 개인 정보를 한 서버에 저장해 관리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가입자 보유 식별 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피상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유심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을 통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

SKT 유심 교체 이대로 해보세요

1	모바일 금융거래 잠금
2	고객센터 114 상담 전화
3	영업 중인 SKT 매장 확인
4	온라인 예약시스템 활용
5	유심칩 재고 유무 파악
6	수상한 연락 차단

다.

이번 무료 교체 대상자는 2500만명에 달하지만, 현재 확보된 유심 물량은 약 100만 개에 불과하다. 5월 말까지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하더라도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심 교체 지연으로 인한 사



이흥노 GIST 교수

유심(USIM) 카드는 핸드폰에 삽입되는 작은 칩으로, 단말기 교체 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카드에는 △전화번호 △가입자 보유 식별번호 △유심 카드 식별번호 등 핵심 정보가 저장돼 있다. 해커가 이 정보를 탈취해 동일한 유심카드를 복제하면, 대포폰 생성 등 금융 사기와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고는 SK텔레콤의 서버가 해킹당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이번 유심

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르신 등 디지털 대응에 취약한 계층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여파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카드 해킹 사태에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유심카드 교체”라며 “유심을 교체하면 가입자 고유 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변경돼 과거 정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전화번호를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유심 재고 부족과 관련해 “물량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유심보호서비스’라도 가입해야 한다”며 “이 서비스는 기존 정보에 휴대전화 고유번호까지 추가로 인증하는 방식이라 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심보호서비스는 28일 오후 5시 30분 기준, 대기 인원이 약 20만명에 달하고 있다. 대기 시간만 18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이 유심 교체나 보호서비스 가입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보이 스피싱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금융거래 잠금 △114 고객센터 상담 △SKT 영업 매장 방문 확인 △수상한 연락 차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SK텔레콤은 70대 이상 등 디지털취약 계층에 상담사가 직접 통화를 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놴다. 이외에도 직접 유심 변경을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위임장 작성에 따른 대리인 교체, 택배·찾아가는 서비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이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2500만명의 정보를 한 서버에 저장해 관리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보 보호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국가 차원의 강력한 보안 컨트롤 타워 구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전남도, ‘전남512호’ 친환경 병원선 건조 착수

현대화 190톤급...내년 6월 완공 섬 주민 의료서비스 향상 기대

전라남도가 23년간 전남 서남해 섬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는 병원선 ‘전남512호’를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건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28일 ㈜삼원중공업 대회의실에서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병원선 담당자 및 관련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선 전남512호’ 대체건조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병원선 전남512호’는 2003년에 건조돼 그 동안 섬 지역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했으며, 6개 시군 90개도서 5000여명(2024년 1만 3251명 진료)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박 노후화(선령 23년)로 이용객 불편과 안전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해마다 선박 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조비 141억원(국비 94억·도비

47억)을 들여 2026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대체 건조에 들어갔다.

새로운 병원선은 서남해안의 낮은심과 조종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하고, 정부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하이브리드 장비를 탑재한다.

기존 170톤급보다 20톤 증가한 190톤급으로 전장 43.7m, 폭 7.4m, 깊이 3.3m, 최대속력 17노트(시속 31km), 최대 44명까지 승선할 수 있다.

특히 섬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골다공증 검진 시 불편하지 않도록 검진실(방사선실)을 현대화 하고, 최신 현대화된 검진장비 시설로 검진시간 단축 등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병원선을 대체 건조하게 되는 ㈜삼원중공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섬 주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최적의 병원선을 건조할 것”을 당부했다.

최동한 기자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병원선 담당자 및 관련업체 관계자 등이 28일 ㈜삼원중공업에서 ‘병원선 전남512호’ 대체 건조 작업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광주광역시시는 노동절(5월1일)을 앞둔 28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노동계·시민사회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광주광역시장 표창 20명 등 총 44명의 모범 조합원들이 표창을 받았고, 근로자 자녀 장학증서도 수여됐다.

광주광역시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 광주’를 실현하고 노동절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광주시청사 계양대에 한국노총 깃발도 게양했다. 정성아 기자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